

매장 방문 전 주문하는 '스몰오더' 서비스 첫 선

KT, 전국 최초 광주·전남 도입 홍보부족·결제방식 불편 문제도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스몰오더'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광주·전남에서 선보여졌다.

특히 스몰오더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여준다. 장점이 있고, 인건비를 줄이면서 매장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어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홍보부족과 결제방식의 번거로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매장 밖에서도 비대면 주문·결제할 수 있는 '스몰오더'를 출시한 뒤 1년간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전남에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스몰오더 서비스는 매장에 도착 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장 밖에서 비대면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타벅스가 자체 앱으로 운영하는 '사이렌 오더'와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스몰오더는 별도의 앱 설치와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리치키유니케이션서비스, RCS)인 채팅플러스의 혜택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둔다.

스몰오더는 KT의 모든 통신사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경우 메시지에서 검색 버튼을 누른 뒤 스몰오더를 검색해 주변에 검색된 스몰오더 매장을 찾아 주문을 하면 된다.

아이폰의 경우 매장에 마련된 아이폰용 큐알코드를 사용하거나 매장 밖에서 미리 주문을 해야 할 경우 지정번호(1533-0185)에 메시지를 보내 전송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문하는 방식이다.

1인 운영 매장, 주문량이 특정 시간대 몰리는 매장의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고 메뉴를 수령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KT측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장점은 다양하다는 것이 KT의 이야기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도입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스몰오더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8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 타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가입비도 저렴하다. 월 정액 9900원으로 매장 이용 고객들에게 스마트 오더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며 KT 인터넷 등 타 상품과 결합 시 1000원의 추가 할인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몰오더는 별도의 기기 도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정보시스템(POS)에 스몰오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고객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기기의 유지보수와 필요한 공간, 추가 설치 기기 등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광주·전남에 첫 도입된 스몰오더는 현재 광주에는 29개점(동구 13개, 서구 4개, 남구 1개, 북구 8개, 광산구 3개), 전남에 1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카페, 디지털 매장 위주로 입점해 있지만, KT는 향후 카페 외 식음료 전체 매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출시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홍보부족 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고객들의 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스몰오더를 이용 중인 광주시 동구의 한 제과가게 관계자는 "스몰오더에 가입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통해 주문을 받아본 적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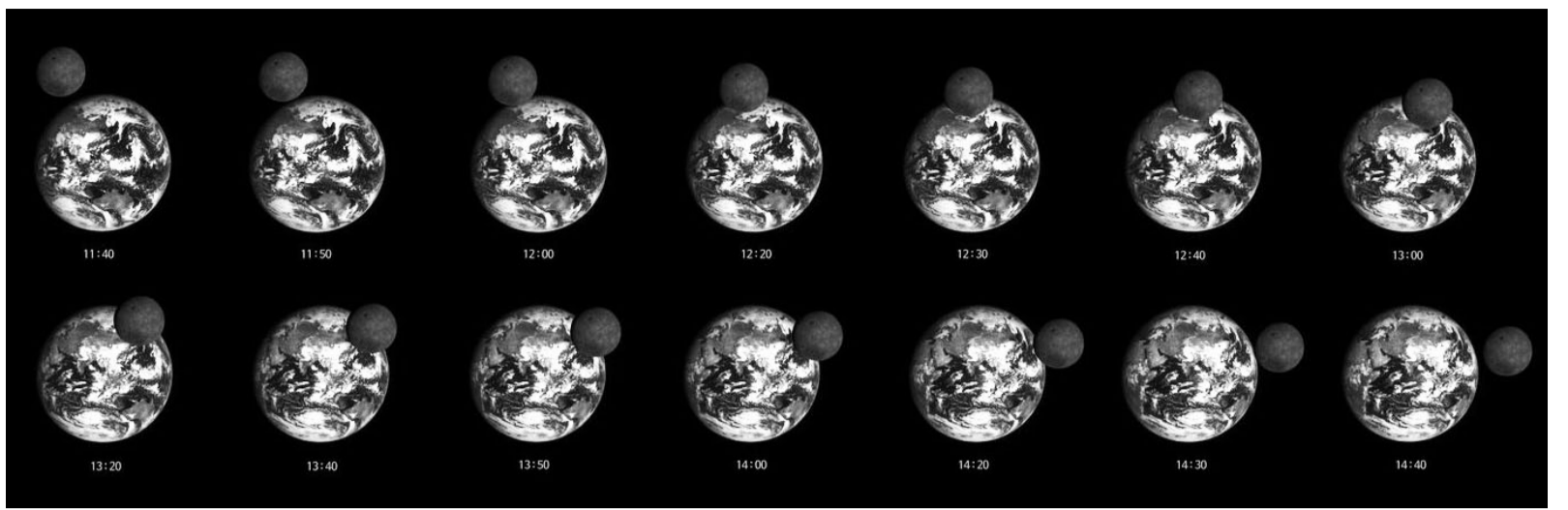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 때문에 매번 결제 할 때마다 카드번호 등을 일일이 적어 결제를 해야 하는 점도 불편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KT관계자는 "광주지역에 스몰오더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돼 진행중이 있고, 점차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을 위해 6개월 간 무료 이용 기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KT 스몰오더 호남권 확대. <KT 제공>



다누리가 촬영한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35년 달 착륙...2045년 화성 무인착륙...2050년 유인 수송

과기부, 우주개발진흥계획 발표 정부, 우주탐사 '담덕계획' 공개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무인 착륙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2050년에 유인 우주 수송을 달성하겠다는 우주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5년부터는 선진 강대국들의 달 기지 건설에도 참여해 우주 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 개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이 라는 5대 임무 달성이 목표다.

정부는 기본계획 중 우주 탐사 계획만 별도로

'담덕 계획'으로 명명했다.

이 담덕계획 일환으로 달이나 화성에 현지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현지자원활용'(ISRU)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달 탐사선 등을 통해 달 표면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아울러 2035년부터는 ISRU 기술을 기반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환인 달기 지 건설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무인 수송체계를 발전시켜 2050년 유인수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우주수송 허브' 지위를 노린다.

이를 위해 2030년 공공-민간 발사장을, 2040년에는 정지궤도-유인 발사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50년에는 우주산업업 10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우주산업 초기시장을 창출하면서 2030년까지 국내에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주안보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감시예측 역

량 등을 고도화하고 2040년에는 선진국과 대등한 국제 공조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우주과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우주 망원경 발사와 지상광학망원경·지상전파망원경 구축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주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우주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 우주 중점 연구실 100여 곳을 지정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와 관련, 정부는 누리호, 고체소형발사체, 고체확장형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 등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발사체를 확보하고, 발사장 인프라도 늘려 과거 나로호 발사장으로 사용됐던 나로우주센터 제1발사장을 개선해 차세대 발사체를 발사할 방침이다.

또 현재 나로우주센터 인근 청석금 지역에 민간 발사장을 새로 구축하고 고체소형 발사체를 넘어 액체소형발사체도 발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도 웹툰 즐긴다

만화 설명해주는 AI 개발...네이버웹툰, 베타 서비스 시작

시각장애인도 웹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미지로 된 웹툰의 대사를 순서대로 인식해 문자로 바꿔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네이버웹툰은 시각장애인의 웹툰 감상을 돕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웹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하고 이를 음성으로 바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다.

그러나 웹툰은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스토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컷 구분과 말풍선 순서가 중요하고 말풍선 밖의 문자도 구분을 해야 한다. 또 건물 간판처럼 배경 그림에 적힌 문자가 인

식돼 섞이면 스토리 전달에 방해가 된다.

네이버웹툰은 1년여 연구 끝에 AI를 활용해 이미지로 제공되는 웹툰의 대사를 순서대로 문자로 바꿔주는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컷과 말풍선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웹툰의 대사를 스토리 전달이 가능하도록 순서대로 문자로 인식한다.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인식된 문자를 스마트폰의 '보이스오버'(모바일 앱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나 토크백(TalkBack) 화면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 기능을 이용해 음성으로 들으며 웹툰을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